

나주시, 전국 첫 어르신 건강 돌봄 '스마트워치' 보급

치매안심마을 100명 대상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산소포화도·심박 이상·낙상·활동량 등 생체 신호 실시간 측정

치매관리도 스마트워치로 보다 스마트하게. 나주시가 치매,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지역 어르신의 노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전국 최초로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홀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 경증치매환자 1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 실시간 생체 및 심리 수치 측정·분석에 따른 건강 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시계)는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를 비롯해 산소포화도, 심박 이상, 활동량(걸음 수), 낙상·기절 등 어르신의 생체 건강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돌봄 기기다.

대상 어르신의 월별 건강지수 등을 파악해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계와 연결된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로 우울·불안·스트레스·회복탄

력성 등 심리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정신건강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워치는 나주시의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생촌신호정보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시계를 통해 취득한 위치정보를 활용, 치매 어르신 사고 방지와 고독사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자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립됐다.

3개 기관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 건강 안전망을 위한 생체·심리 연계 웰니스(신체·정신건강 종합지수) 케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3차례에 걸친 연구·실증을 진행해왔다.

나주시는 실증 성과에 힘입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에 선정됐다.

여기에 나주시 시정연구모임인 '뜻세움' 발표회



나주시가 치매관리를 위해 보급한 스마트워치.

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SMART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 체계 조성사업을 제안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경이사항을 이루었다.

시는 소방서, 경찰서, 관내 병원과 연계, 어르신의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실시간 신체·정신건강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응급 상황 출동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국 최초 스마트워치 기반 생촌신호정보 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마을과 집에서 노후 일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주시만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에 생태·예술교육 가족체험공간 조성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 용역 보고회 2025년까지 도비 등 135억 투입

함평엑스포공원에 곤충을 기반으로 한 생태·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족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함평군은 지난 4일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은 전남도의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2022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돼 도비 50억원, 군비 85억원 등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엑스포공원을 생태·예술 교육이 접목된 가족체험공간으로 꾸밀 계획을 세웠다.

나비의 숲, 나비 아트 공작소 등 4개 주제의 체험관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모험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꾸며진다.

에듀테인먼트파크의 핵심 시설은 1-2층 연면적



함평군이 지난 4일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 <함평군 제공>

1575.8㎡로, 이곳에는 1151.9㎡ 규모 전시실이 들어선다.

이상의 함평군은 보고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과 반영에 힘써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군이 곤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나주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6개 항목 적합

올 488건 검사 모두 기준치 이하

나주시가 지난 8월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전남도와 함께 유통·판매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9월과 11월 관내 마트 등에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 6개 항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9월은 참돔·꽃게·광어, 11월엔 굴·대구·숭어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수산물 판매 영

업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주 도내 지자체 2곳의 수산물(3건)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현재까지 도내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수산물 총 488건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판매 영업주들은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화순군 평생학습 '핸드드립 커피' 수강생 모집

12일부터 6차례 2시간씩 교육

화순군은 겨울 평생학습인 '용 핸드드립 커피 제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수업은 화순군 평생학습관에서 오는 12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직장인 등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수업을 연다.

강연에서는 용 핸드드립 전문가를 초청해 커피

추출법과 좋은 원두 선별하는 법 등을 배운다.

19세 이상의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누리집(hwasun.go.kr/lll)에서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강좌, 주말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배우는 기쁨! ...강진군 평생교육 한마당 대잔치

내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2023년 강진군 평생교육 한마당 대잔치가 오는 8일 오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진군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배우는 기쁨! 참여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군민자치대학 14개 과정에 참여한 500여 명이 수강생과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1년간 배움의 결실을 나누고 축하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밴드반 수강생들이 시선 공연

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한다.

이후 평생교육 우수자 표창과 성과 공유, 소감 발표 등이 이어진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아트홀 로비에서는 평생학습 홍보·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라탄손거울 만들기, 커피드립백, 천연비누 만들기, 캘리 열쇠고리 만들기,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체험, 분리배출 체험 등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체험공간을 방문해 도장 5개를 받으면 기념품을 주는 '스탬프 투어' 행사도 진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아트홀 1층 전시실에서는 한문 서예, 목공예, 생활도자기 등 평생학습 강좌 수료생들의 작품과 평생학습 동아리, 음식문화대학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날 202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 조사도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올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자치대학 신설·확대 운영, 면 단위 군민들을 위한 배달강좌 신설, 신규 동아리 발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흥군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61점 접수 우수작품 19점 시상

장흥군이 '2023년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에 참가한 61점 가운데 우수 작품 19점을 선정해 최근 시상했다.

장흥군은 지난 5일 군청 회의실에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작품 수상자를 초청해 시상했다.

이 공모전은 양성평등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 안 아빠의 역할을 권장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난 9월25일부터 17일간 작품을 접수했다. 공모전에는 총 32가족의 61점 작품이 출품됐다.

장흥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 우수 작품 19점을 선정했다.

작품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상(2명) 각 30만원, 우수상(3명) 각 20만원, 입선(13명) 각 10만원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장흥군(군수 김상-가운데)이 주최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우수 작품에 선정된 수상자들이 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우수작품 19점은 이날 한 달간 장흥군청 1층 로비·행복민원과에서 전시한다.

이 작품들은 앞으로 저출산 극복·양성평등 관련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동육아나 가사분담이 갖는 의미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김한중(오른쪽 두번째) 장흥군수 등이 6일 장흥군 북하면 화룡마을 농촌경관개선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식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북하면 화룡마을 농촌경관개선 완료

전통 담장 복원·소공원 조성

장흥군 북하면 화룡마을에서 추진된 농촌경관 개선사업이 준공됐다.

장흥군은 6일 김한중 장흥군수와 고재진 장흥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이 지난 3월 전남도 공모사업에 화룡마을을 농촌경관개선사업이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도비 포함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7월 착공을 한 뒤 이달 6일 준공식을 열었다.

장흥군은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환경과 인문 자원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다.

공모 참여 단계부터 화룡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왔다. 사업을 통해 마을 전통 담장을 복원하고 입석 정비, 소공원 조성, 슬레이트·공가 정비 등을 진행했다.

오래된 주택 외관과 길가, 공원 등도 깔끔하게 정비됐다.

특히 마을 입구에 있던 문중 비석을 이전 설치하며 넓은 출입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한중 장흥군수는 "이번 농촌경관개선사업 준공으로 천년고찰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화룡마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